

## I. 序 論

조선 초는 천년이상 이어져온 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왔던 불교가 유교로 바뀌는 전환기이며 유학의 정신이 정교의 목적으로 사회의 한 부분을 차지한 시기이다. 유학을 장려하는 정책은 바로 『사서오경』의 장려로 이어지는데 이 때문에 자연히 서예도 발전하는 기회를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려 말은 공민왕의 깊은 학문과 높은 예술적 품위 영향인지 서예 또한 예쁘게 정돈하는 서풍이 유행하였으나, 조선 초는 이성계 같은 무관적 기질과 군센 정신력의 필요에 의해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필세 또한 힘차다고 말한다. 서예정신은 려말의 의리를 중시하던 의의를 이어서 “心正筆正”과 “心法卽字法”이 중요한 미학의 요건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고려 말 이제현(1287-1367)의 조맹부(1254-1322) 서체 도입으로 송설체가 유행하여 당시의 서예가는 누구나 잘 썼으나 특히 비해당 이용(匪懈堂 李瑢:1418-1453)에 이르러 꽃을 피우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시대의 대표 인물로는 최항(1409-1474) · 박팽년(1417-1456) · 서거정(1420-1488) · 성현(1439-1504) · 김일손(1464-1498) · 소세양(1486-1562) · 이황(1501-1570) · 홍성민(1536-1594) · 최립(1539-1612) · 유성용(1542-1607) · 이우(1542-1609) 등 1400년대에서 1600년대에 활동한 문인 문필들이다. 이들의 詩 · 書 · 序 · 題 · 評 등에서 서평과 서예미학 부분이 돋보였기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 II. 書 評

서평은 蕭衍(464-549) 즉 南朝 梁나라를 건립한 梁武帝의 「古今書人優劣評」을 시작으로 하여 庾肩吾(487-551)의 「書品」, 李嗣眞(?-696)의 「書後品」으로 이어진다. 이의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오래전부터 詩나 序 · 題 · 記 · 贊 또는 評 등에서 보이기 시작한지는 오래다. 일찍이 최치원(857-951?)의 『桂苑筆耕集』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또한 고려 李奎報(1168-1241)의 『동국이상국집』 속의 「동국제현서결평론서」에서 동국의 여러 名筆을 들어 평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여러 문헌에서 서평을 찾아 중국 書藝家들의 평과 한국 서예가들의 평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中 國

중국에서의 서평은 서기 약 500년경 이미 양 무제에 의해 시작 된지 오래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서예가에 대한 평은 일찍이 신라에도 있었다. 조선초기의 문신이며 학자인 최항

42)은 당시 서예가의 대표로 꼽히는 安平大君의 詩軸에 序하면서 先秦이후부터 元대까지의 서예를 아래와 같이 함축하여 평하였다.

요즘 세상에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 선진 이후에는 유독 장지·종요 같은 몇몇의 무리가 호걸이었다. 진 나라에 와서는 왕희지가 처음으로 그 묘를 지극히 하였고, 당 나라에는 우세남·안진경이 있고, 송나라에는 황정견·미불이 있고, 원나라에서는 조맹부와 선우추 등의 몇 사람을 얻는데 그치었다. 이 모든 서가들의 필세는 서로 달라서 모두 각각 그 지극함을 다하려 하였다.

今天下善書者不世出。先秦以後。獨數張伯英·鍾元常輩爲之傑。至晉王逸小。殆極其妙。唐有虞世南·顏眞卿。宋有黃太史·米南宮。於元得松雪翁·鮮于伯機數人而止。諸家筆勢不同。要皆各臻其極。

서예를 평함에 항상 晉代의 왕희지를 표준으로 삼는 것이다. 더구나 위 글로 보아 중국에서도 元 이후에는 뛰어난 서예가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이 들 몇몇의 평을 각각 모아 보기로 하겠다.

## 1) 종요 · 이왕

종요(鍾繇:151-230)는 위부인(272-349)의 스승이고 위부인은 왕희지(321- 379 혹 303-361)의 스승이다. 종요와 왕희지의 글씨가 우리나라에 알려진 시기는 해동서성 김생(711-791)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종요와 왕희지에 대한 평은 그 역사가 이미 오래 되었다. 조선 중기의 퇴계 이황은 초기의 정교이념으로 전해진 유학을 理氣 철학으로 크게 발전시킨 사람이다. 이러한 사상이 퇴계가 산음에서 왕희지가 어느 도사에게 글씨를 써주고 거위를 받아온 풍류에 감동하여 그의 인품을 다음과 같이 기리었다.

소쇄한 산음에서 도사를 만나

도덕경을 쓰니 천년 동안 진동하네.

글씨를 거위와 바꾸어 돌아간 풍류가 심원한데

조금이라도 어찌 빼어난 모습에 누가 되리.

조선중기 율곡 이이(1536-1584)의 동생인 李瑀는 어머니 사임당(1504-1551)의 영향인지 서화에 능했다. 그의 「論書法」에서 “우군의 글씨는 용이 天門을 뛰어 오르는 것 같고, 호랑

이가 鳳閣에 누어있는 것 같아서, 천고에 높이 뛰어나니 자랑할 만하지 않은가. 중요한 글씨는 雲鶴이 하늘에서 노는 것 같고, 子敬(344-386)의 글씨는 흰 산비둘기가 공중을 가로지르는 것 같다”고 평 하였다.

## 2) 당태종 · 안진경 · 장욱 · 회소

위 · 진대의 서예는 운치를 숭상하였으며 중화미의 극치를 이루었다고 평한다. 당대에 와서는 운치도 중요하지만 통일된 법제가 필요한 시기였다. 이와 더불어 서예 역시 통일된 규격을 중시하게 되었다. 법제화를 증시하다보니 약간의 운치는 진대에 비해 모자라지만 唐太宗(597-649) · 張旭(未詳이나658-747) · 顏真卿(709-785) · 懷素(725-785) 같은 우뚝한 서예가도 배출되었다. 아래는 이들에 대한 李瑀의 평이다.

당태종의 글씨는 초하룻날 밤의 은하인 듯한 義士가 울분에 북받치어 生을 잇고 긴 창과 큰 칼을 들고 戰陣에서 횡행 하는 것 같고, 顏太師의 글씨는 珊瑚나 푸른 나무가 겉과 속이 모두 골로 차있는 것 같고, 張旭의 글씨는 하늘에서 꽃잎을 뿌리듯 변화를 예측할 수 없고, 懷素의 글씨는 여름 구름이 바다에서 솟듯 기이한 봉우리가 빼어나게 솟아오르므로 바람이 일고 신기가 방자하게 이는 것 같다.

자연의 형상은 참으로 아름답다. 그러므로 서예는 자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점획의 형상에서부터 결구와 장법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형상을 비유하지 않음이 없다. 또한 서평에서도 위와 같이 자연의 오묘한 형상을 연상하여 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주자

중국의 철학은 宋代에 와서 꽃을 피우게 되었는데 이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朱子(1130-1200)이다. 주자의 학문은 동방에 들어와 조선시대의 대표학문이 되었으며 이 학문의 영향으로 걸출한 학자와 이론의 발전을 가져왔다. 이에 동방 리학을 집대성하고 후학양성에 여생을 바쳤던 퇴계의 맥은 유성룡으로 이어진다. 유성룡은 선생인 퇴계학도 존경하였지만 스승과 같이 주자학의 이념을 따랐다. 그런 그가 회암이 쓴 “孝悌忠信禮義廉恥” 여덟 자를 수신과 존양의 법으로 삼아 아래와 같이 노래하였다.

東都大尹은 참으로 옛것을 좋아하여

考亭에 난봉자(鸞鳳字) 새긴 것을 구해 걸었네.

종이 한 장에 한 자씩 쓴 큰 글씨가 말(斗)만한데

封遠이 題하고 西厓 아들이 부쳤다네.  
 서애노인은 놀라면서도 기뻐  
 대낮에 올려보며 心畫을 즐기네.  
 안진경의 근육과 유공권의 골격에는 부족한 보배지만  
 글자마나 용과 호랑이가 뛰는 듯하네.  
 들보사이에 높게 걸어 꿰어 앉아 읽으니  
 墨花가 반짝반짝 온 벽을 비추네.  
 當年에 神禹가 술을 만드니  
 철근과 金滕<sup>48)</sup>의 무게가 千石이라네.  
 또 秦나라 정원에 종 다는 틀을 보는 것 같아  
 나란히 우뚝 솟아 웅장함을 다투지만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 같네.  
 장 하도다 來繼往業을 여니  
 나머지 일이야 많지만 능히 이와 같음이라.  
 자세히 관찰해보니 자획에 독특한 기묘함은 없지만  
 여덟 자 가운데 精義가 있네.  
 ‘孝悌’는 원래 百行의 근원이요  
 ‘忠信’은 진실로 一心의 덕이 되네.  
 ‘禮義廉恥’는 네 버리이니  
 모두 修身과 存養의 큰 법이네.  
 聖賢之學은 요체를 앎을 귀히 여기는데  
 다섯 수레에 넘치는 책을 언제 다 쓰고 읽겠는가.  
 내 몸을 돌아보니 이미 등에서 땀이 나고  
 한자도 이루지 못하였는데 이제 벌써 백발이 되었구나.  
 은근히 시를 지어 아이들을 경계하니  
 내 말은 마땅히 노력하여 허망하게 되지 않게 함이라.

서평은 다른 평과 달리 인품도 같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書與其人·人書俱老”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이다. 위 글에서도 회암의 글씨도 좋지만 회암의 인품과 같이한 여덟 자 모두가 精義가 있는 내용이다. “孝悌는 원래 百行의 근원이요, 忠信은 진실로 一心의 덕이 되네. 禮義廉恥는 네 버리이니 모두 修身과 存養의 큰 법이네.”라는데 더욱 가치를 느끼게 하는 점이다.

#### 4) 조맹부

趙孟頫(1254-1322)와 우리나라 서예와의 인연은 고려 후기부터이다. 1314년 상왕인 충선왕이 원나라의 수도 연경에 있을 때 만권당을 짓고 글을 즐기며 원나라의 유명한 문인 학자들과 교류하였는데, 이들을 상대할 고려의 인물로 李齊賢(1287-1367)을 불러 들였던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로부터 이재현은 만권당에 출입하는 요수·염복·원명선·조맹부 등과의 잦은 접촉에서 식견을 넓혀왔다. 특히 조맹부에게서 서예의 식견을 넓히게 되었고 그의 글씨를 고려로 들여오게 되었던 것이다. 송설체는 곧바로 정가는 물론이고 글씨를 즐기는 모든 문인들에게 전파되어 일약 교본이 되었다. 익재는 송설의 글씨와 인품을 높이 평했음을 그의 시 「和呈趙學士」<sup>50)</sup>에서 느낄 수 있다. 다음은 蘇世讓이 “송설이 쓴 칠월편이란 글씨를 보고 그 필법을 좋아해서 시험 삼아 임서를 해보았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한탄하며” 찬사를 보낸 시이다.

松雪 趙學士의 필법이 천하에 묘하다.

큰 글자는 용이 승천하는 듯하고

작은 글자는 지극히 단아하구나.

평생 동안 사모함이 깊어

이를 얻자 잠시도 놓지 못하네.

근래에 본 七月詩는

瀟灑함이 배로 비쳐 보이는 구나.

맑게 갠 창가에서 시험 삼아 한 번 임서해보니

손은 마음 따라 쓰이지 않는구나.

오히려 앉아서 큰 한숨만 나오니

심 하구나 나의 쇠함이여.

西施를 본받을 鹽씨가 없는데

어찌 진실과 거짓이 있겠는가.

또 옷깃 여김만 못하니

종신토록 아리따운 소녀를 우러러보겠네.

조선전기의 문신인 소세양은 1514년에 賜暇讀書를 한 학자로 王子師傅를 지냈다. 그는 문인으로 이름이 높고 율시에 뛰어났으며 글씨는 송설체를 잘 썼다고 한다. 이해보아 당시 송설체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위와 같이 조선초기에는 왕희지를 비롯한 당태종·장유·안진경·회소 등의 영향이 없지는 않았지만 가장 위력을 과시한 서체는 松雪體임을 알 수 있다.